



# 양현종 가는 길 KIA의 역사다

## ‘몸보신’ 광주 FC, 승리 사냥

1일 K리그2 26R 안산 원정... 선수단 한우파티로 기충전

광주FC가 ‘무승부의 8월’을 뒤로하고 ‘승리의 9월’을 연다. 광주에는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안산그리너스와 2019 K리그2 2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광주의 선두 수성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16골로 득점 1위에 올라있는 펠리페에 대한 집중 견제 속 주전 선수들의 부상,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 등으로 광주의 몸이 무겁다. 광주는 앞선 8월 4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격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위 부산아이파크와 승점 5점 차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승격으로 가기 위해 11경기를 더 치러야 하고 부산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응원에 나섰다. 이 구단주는 지난 27일 한우파티를 열어 선수단 기살리기에 나섰다. 박진섭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단도 새 마음으로 9월을 준비하고 있다. 박진섭 감독은 “승점 1점도 좋지만, 승격을 위해서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상대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무장해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빅리그 태극전사들 ‘예열 끝~’

황의조·손흥민·황희찬·권창훈 득점 도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들이 A매치 데이를 앞두고 나란히 득점에 도전한다. 지난 26일 뉴캐슬전에서 예열을 마친 손흥민(토트넘)은 아스널과 ‘복련던 더비’에서 시즌 마수결이 꼴을 조준한다. 토트넘은 다음달 2일 새벽 0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2019-20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프랑스의 황의조(보르도)도 2경기 연속골을 노린다. 1일 새벽 0시 30분 리옹과 리그1 4라운드 원정 경기 출전을 예고하고 있다. 황의조는 25일 디종과의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로 리그1 3경기만에 데뷔골을 맞았다. 리그 초반 1무 1패로 부진했던 보르도는 황의조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첫 승을 거뒀다. 벤투호 출범 후 치른 16차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7골을 넣은 황의조도 리옹전을 치르고 대표팀에 합류한다. 올시즌 유럽무대에서 가장 핫한 황희찬은 1일 새벽 0시 슈바르프스키 티롤과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속골에 도전한다. 황희찬은 올시즌 6경기에 출전해 9개의 공격포인트(3골·6도움)를 기록하며 패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개막 5연승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출전 5분 만에 데뷔골을 넣은 권창훈(프라이부르크)도 지난 31일 밤 10시 30분 FC 쾰른과 정규 리그 3라운드 홈 경기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권창훈은 지난 24일 파더보른과의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1로 앞선 후반 40분에 투입돼 경기의 마침표를 찍는 췌기골을 터트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에이스의 품격’으로 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14승에 성공했다.

양현종은 앞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17일 SK전에서 단 한 점도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다. 22일 키움전에서는 8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지만 불펜진이 5점의 리드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번 등판은 완벽하지는 않았다. 5.1이닝에서 등판이 끝났고, 볼넷 4개도 허용했다. 하지만 제구 난조 속에서도 6회 1사까지 책임졌고, 실점도 최소화하며 5-1 승리를 이끌었다.

밸런스가 좋지 못했던 양현종은 평소보다 많은 투구수를 기록하며 5회를 98구로 끝냈다.

이어 5회말 유민상의 동점 솔로포를 시작으로 KIA가 3-1 리드를 잡으면서 양현종에게 승리투수 요건이 주어졌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6회에도 양현종이 마운드에 섰다.

양현종은 경기가 끝난 뒤 “어제도 중간 투수들이 고생 많이 했고 저번 주에 타이트한 게임이 많아서 중간 투수들 피로가 쌓여있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1주일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던질 때만큼은 던지려고 한다”고 6회

삼성전 5.1이닝 호투 시즌 14승 KBO 5번째 1500 탈삼진 달성 KIA 좌완 투수 중 최초

훈련·시범 등 코치 자처 팀내 에이스·만형 역할 특출 후배들에 ‘살아있는 교과서’

등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운드에서 양현종은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다. 이날도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승리를 챙겼다.

양현종은 “밸런스 문제가 있었다.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없다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직구 컨트롤이 안 됐고 직구 힘이 없어서 최대한 변화구 컨트롤에 신경 썼다”며 “안 좋을 때는 빨리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경기를 통해 나도 하나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덕아웃에서도 양현종은 후배들의 좋은 스승이다. 양현종은 “후배들이 궁금한 것을 잘 물어본다.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예전에는 선배들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린

선수들이나 자기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 보기 좋고 나도 최대한 후배들에 많이 알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에서도 양현종은 후배들을 위해 기간 훈련을 자처했다. 고민도 들어주고, 시범도 보이면서 후배들을 이끌었다.

14승을 거둔 이날 양현종은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박준표에게 수훈선수를 양보하기도 했다.

앞선 양현종의 등판날 세 번째 투수로 나와 2실점을 했던 박준표는 “현종이 형이 수훈선수를 양보해줬다”며 “지난 고척 경기가 끝난 뒤에 먼저 형이 장난을 치고 편하게 해줬다. 형의 승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팀 미래인 후배들을 이끄는 양현종은 타이거즈 역사도 만들어가고 있다.

28일 양현종은 통산 1500탈삼진을 돌파했다. KBO리그 5번째로 팀에서는 이강철(1749개), 선동열(1698개)에 이어 세 번째, 타이거즈 좌완으로는 최초다.

양현종은 “워낙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지만 아직 많은 게 남아있다. 더 집중해서 통산 기록이나 이런 걸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는 게 목표다”며 “이강철 감독님께서 워낙 대단한 기록을 남기셨다. 그 기록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면 나도 타이거즈를 이은 그런 인정받은 선수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아시아 올해의 남자 선수’ 손흥민

애프터유기자연맹 첫 선정 ... 여자는 인도 복싱 맥머리 콧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27·토트넘)이 아시아 체육기자연맹(AIPS ASIA)이 선정하는 올해의 남자 선수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정희돈)은 29일 “아시아체육기자연맹 총회에서 손흥민이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시아체육기자연맹은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남녀 올해의 아시아 선수와 팀

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시아체육기자연맹이 올해의 아시아 선수와 팀을 시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올해의 여자선수에는 인도 복싱의 맥머리 콧이 선정됐다.

올해의 팀은 카타르 남자 축구대표팀과 일본 여자 축구대표팀이 수상했다.

아시아체육기자연맹은 1978년 설립된 아시아 스포츠기자들의 권익단체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카타르 등 30개국יו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